

이론 재구성의 원리와 실제: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과 계급타협 이론을 중심으로

이주희*

사회과학 방법론이 다루는 핵심과제 중 이론구성에 빠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 이슈가 이론 재구성이다. 이론 구성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상호 연관과 인파관계의 방향을 올바로 규정짓는 것이라면, 이론 재구성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이론의 기본요소들을 변환시켜 그 이론을 더 발전시키거나 그 이론보다 현상을 설명하는 데 더 강한 설명력을 지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론이 진보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대답(설명)하려 노력하는 이론 재구성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론 재구성의 실제 과정을 탐구하는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서는 이론 재구성에 대한 과학철학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론 재구성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뒷부분은 실제 완성된 박사논문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 논문작성과정에서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론 재구성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재구성된 내용을 보여준다.

1. 과학적 이론의 변환과 재구성

1) 이론 재구성에 대한 과학철학적 인식: 선형적 사실주의

사회에 대한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과학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논의는 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공분야는 경제/산업사회학, 노사관계론, 국제정치경제학이다. 주요저서로 “성차별 분쟁조정기구 및 분쟁조정절차: 미국 동등고용기위원회(EEO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비교연구”(2000), “IMF 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초국적 자본이동과 한국국가의 과제”(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1997) 등이 있다(연락처: 02)785-1803, 019-229-5650, E-mail: jlee@kli.re.kr).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과학철학 내 여러 전통 중, 바스카(Bhaskar 1978)의 선험적 사실주의(transcendental realism)에 바탕한 과학의 개념이 이 글의 주제인 이론 재구성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선험적 사실주의는 과학철학 내의 두 다른 입장, 고전적 경험주의(empiricism)와 과학에 대한 신 칸트적인 해석인 선험적 관념주의(transcendental idealism)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들 중 예외적인 경험적 현상들이 이론 내에서 밝혀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주는 입장이다.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학은 경험적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 사건들의 상시연결성(constant conjunctions of events)에 관한 일반화를 통해 일반법칙을 알아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험적 사실주의는 세계는 다양한 인과관계의 기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열린 체계(open system)이므로 그 사건들의 상시연결성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이 입장을 비판한다. 과학적 설명은 바로 그 상시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기제들에 대한 이론을 함축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이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그 진정한 기제들은 과학자의 사고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선험적 사실주의는 그러나 과학을 과학자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모델로 간주하는 선험적 관념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선험적 관념주의 하에서는 자연세계의 경험적 현상이 과학자집단이 생각해 낸 순수한 상상적 구성물로서만 존재한다. 선험적 사실주의는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나,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독립되어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기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관찰된 규칙성과 그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기제를 구분하여 과학적 이론들이 바로 그런 기제들을 올바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의한다.

선험적 사실주의의 설명방식은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우선 경험적 규칙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이론에 기초해 그 규칙성을 만들어 내는 기제를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적 조사방법을 사용해 그 기제 속에서 가정된 요소들과 가정들을 검토한다. 경험주의는 경험적 규칙성 그 자체를 과학적 발견으로 간주하고, 선험적 관념주의는 그 규칙성에 대한 모델형성에서 과학적 탐구행위를 멈춘다. 이 두 가지 방식에서처럼 이론이 항상 경험적 사실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과학자 스스로 경험적 사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험적 현상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예외들은 이론과는 독립적으로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기제가 있음을 상정할 때에만 그 존재가 인정되며, 바로 이런 예외적인 현상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통해 이론이 재구성될 수 있다.

2) 이론 재구성을 시도하는 이유

(1) 이론적 탐구대상 — 종속변수 — 을 기준의 이론이 잘못 파악한 경우

똑 같은 경험적 현상에 대해 이론마다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론마다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의 이론들이 던진 질문이 불충분하거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준의 이론이 수정된다.

이런 이유로 행해진 가장 대표적인 사회학적 이론 재구성의 예로 버러워이(Burawoy 1979, 1985)의 노동과정이론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이란 경험적 현상에 대해 버러워이는 기존의 막스주의 이론, 특히 막스주의 전통을 가장 많이 이어받았던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식을 가졌다. 브레이버만에게 자본주의 노동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대상은 그가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여겼던 노동의 쇠퇴였다. 그의 노동과정이론은 그 이후 공장노동이 조직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정치적 측면과 작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저항을 무시한 이론으로 비판되어왔다. 그런 비판을 제시한 이론들 중에서 버러워이의 노동과정이론은 그 고전이론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가장 발전된 대안적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버러워이는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본질을 초파이윤의 확보와 은폐로 파악한다. 즉 자본가들은 두 가지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모순적 위치에 서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노동과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해야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순조롭게 재생산하기 위해 이윤창출을 가져오는 계급관계를 은폐시킬 필요가 있어서라고 논의한다. 이런 이윤의 창출과 은폐가 동시에 필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과정에의 능동적인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버러워이에 따르면 노동자가 자본주의 노동과정이란 게임¹⁾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1) 노동과정을 게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노동과정이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합의된 법칙

윤의 확보와 은폐에 기여하게 된다.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게임을 규정하는 기본 규칙 — 자본주의의 규칙 — 에 기본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한다. 베러위이는 브레이버만을 비롯한 막스주의 고전이론과 달리 노동과정을 다차원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경쟁의 과정으로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기존 이론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과 전혀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가진 새로운 노동과정 이론을 창조하였다.

(2) 설명력있는 개념의 부재

한 이론 내에서 어떤 개념이 설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Wright 1985: 20-24). 우선 그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이론틀의 기본 가정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성된 개념이어야 한다. 또한 그 이론틀내의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 경험적인 현상과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한 일반이론 내의 개념들이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계속 실패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개념이 비록 이론이 요구하는 기본조건들은 만족시키지만 경험적 설명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설명력이란 점에서 다른 경쟁 개념들보다 뛰어나긴 하나 일반이론속에 통합될 수 없다면 그 일반이론 자체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라이트(Wright 1978)의 계급관계내의 모순적 위치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형성과 그에 따른 계급이론 재구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한 좋은 예이다. 양극화되리라고 기대되었던 발전된 산업국가의 계급구조내에 기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중간계급은 막스의 계급이론 내에서 설명되어져야만 했던 중요한 경험적 현상이었다. 라이트는 그 현상을 이론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개념들 — 중간층, 새 빼띠 브르조아지, 새 중간계급, 그리고 새 계급 등 — 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개념들이 막스주의 계급이론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론틀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막스의 계급이론하에서 계급이란 개념은 전환적인 사회갈등을 가장 근본적으로 규정해주는, 착취의 시스템으로서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에 의해 게임을 하는 행위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임은 그가 공장정권(factory regimes)이라고 부른 여러형태의 노동통제정권에 의해 구조화되는데, 이 공장정권은 생산조직 내에서 생산의 정치적 측면들이 제도화되는 기본적 방식들을 가리킨다.

한 예로 뿔랑자(Poulantzas 1975)는 비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 그리고 감독직을 수행하거나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새 뾰띠 브르조아지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전문직종사자로부터 비서, 그리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에 이르는 다양한 임금노동자들이 같은 계급의식을 가지리라고 여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이런 임금노동자들이 생산의 사회적 관계란 측면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계급개념은 막스의 계급이론이 요구하는 기본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트는 다른 대안적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전제, 즉 모든 계급위치들은 단 한가지의 계급위치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고 계급구조내의 모든 위치들이 다중적인 계급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함으로써 중간계급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형성을 발판을 마련하였다. 몇몇 계급위치들은 다중적 계급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비노동계급 임금 노동자는 새 뾰띠 브르조아지라는 한 계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 계급특성을 가지는 모순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조직에서 일하는 중간관리자는 노동자들에게 명령하고 처벌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본가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명령받은 바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 할 때 해고당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본가에 대해서는 노동자적 위치를 차지한다.²⁾ 뿔랑자의 이론에 비해 라이트의 이론은 중간관리자들의 모순적 계급의식과 계급의 관계적 특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형성을 통한 이론 재구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족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 즉 어떤 경험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수행하기 무척 어려운

2) 그러나 라이트의 새 중간계급 개념 역시 계급을 착취에 기반한 관계로 파악하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본인이 잘 설명하였듯이(Wright 1985), 모순적 위치에 있는 계급들 대부분이 착취가 아닌 지배의 관계속에서 그 모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간관리자는 자본가에게 지배당하면서 노동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순적 위치에 있는 것이지 어떤 면이든 이 두 계급과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그 계급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업이다. 앞 절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회과학의 대상은 여러 개의 인과적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체계여서 진정한 의미의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³⁾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론가들이 비록 몇몇 원인들이 특정한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는 정도까지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성.⁴⁾ 혹은 그 원인들이 특정한 인과관계의 과정에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이론이 특정 인과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규정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론 재구성을 시도하게 된다.

근대 산업국가의 국가정책에 대한 막스주의자와 신 베버주의자사이의 최근 논쟁이 이런 이유로 행해진 이론 재구성의 예를 잘 제시해 준다(Wright et al., 1992). 그들 다 계급구조 혹은 계급투쟁적 요소와 국가중심적 요소들, 즉 국가관료기구의 특성과 역량이 국가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나 각각 이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막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계급구조를 국가정책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생기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축적의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물론 국가중심적인 원인도 특정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원인이기는 하지만

3) 이런 이유로 사회학의 이론구성과 재구성을 위해 준 실험적 연구 디자인설정을 가능케 해 주는 비교역사적 이론틀이 많이 쓰이는 것이다.

4) 원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든 일이다. 그 측정을 위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우선 그 다양한 원인들이 대상인구집단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 어떤 원인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지 —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그 각각의 원인들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두 번째 정보를 정확히 얻기 힘들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폐암이 흡연과 플라토니움(plutonium)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두 원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려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플라토니움 약간량과 몇 년간에 걸친 흡연량의 효과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가? 사회학이 연구하는 많은 중요한 주제들, 큰 규모의 사회변동, 혁명, 국가정책에 대해 이런 식의 면밀한 양적 탐구를 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대응방식을 취해왔다. 미국주류 사회학자들이 택해온 방식은 제한된 인구집단과 쉽게 측정가능한 현상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방식은 그러나 사회과학의 범위와 대상을 너무 많이 축소시켜버린다. 사회이론의 개발에 관심있는 급진적인 학자들은 고전적인 큰 스케일의 탐구를 계속하되 원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언급하는 일은 자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Wright et al., 1992).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발달에 필연적인 부정의한 분배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래서 임금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분쟁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들이 생겨났다고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계급중심적, 국가 중심적 요소들과 국가정책결과의 인과관계를 규정짓는 데 반대하면서 신 베버주의자들은 정치적인, 국가중심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두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역사적인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론 재구성을 할 때에는 설명되어지는 대상을 정확히 결정한 후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야 한다. 올로프와 스카치풀(Orloff and Skocpol 1984)의 경우가 그렇지 하지 못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은 세 발전된 산업국가 — 영국, 캐나다, 미국 — 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중심적인 이론들을 발전시켜 기존 이론들, 특히 막스주의이론과 대비시키는데, 그들의 핵심적인 이론적 주장은 이 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시기 — 영국은 1904년, 캐나다는 1922년, 미국은 1933년 — 는 이 세나라의 계급구조나 투쟁에서의 차이보다는 이 세 나라의 국가구조/제도상의 특성의 차이 때문에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연금과 관련된 심한 부정부패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늦어지게 되었었다. 일반적으로 막스주의적 국가이론은 보다 긴 기간 — 적어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 에 걸쳐 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재분배적인 국가정책들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시작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왜 그런 특정한 시기에 특정국가들이 국가정책을 도입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국가중심적인 원인들이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지만, 복지국가정책의 발달 그 자체라는 근본적인 사실 그 자체는 계급중심적인 원인들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설명대상이 구체적이 되면 될수록 국가중심적인 원인들의 설명력이 커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론 재구성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수정,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같은 설명 대상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였음을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4) 기존이론의 내용자체에 대한 반론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많은 설명을 필요치 않는 이론 재구성의 이유는 기존 이론의 전제와 실질적 내용 그 자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기존 이론의

내용이 현실을 예측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거나 그 경험적 현상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있는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연구자는 새로운 내용의 이론으로 기존이론의 실패를 극복하려 노력하게 된다. 예컨대 정통 막스주의 이론이 자본주의체제의 붕괴을 설명하는 데 명백히 실패한 이후 많은 이론들⁵⁾이 그 해답을 마련하려 노력했다. 여기서는 그 중 쉐보스키(Przeworski 1985)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막스는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해의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즉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은 부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자의 물질적 이해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쉐보스키는 다르게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단기적 물질적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가 같은 경제적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자본가들로 하여금 이윤의 일부를 미래의 임금인상을 위해 투자하게 할 수 있을 때 더 커진다. 설사 노동자의 장기적인 물질적 이익이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환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동자는 언제나 자본주의 하에 남아서 그 안에서 물질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정통 막스이론이 설명하는 데 실패한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관계가 안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득력있는 대안적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이론 재구성의 결과

과학의 진보는 경험적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기제들에 대한 축적된 이해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이론 재구성은 바로 그런 과학의 진보에 다음과 같은 두 방식으로 기여하게 된다.

첫째, 이론 재구성을 통해 그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큰 패러다임(paradigm) 혹은 연구 프로그램(research program)의 내용과 설명력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⁶⁾ 각각

5) 자본주의의 몰락이 제3세계국가들의 침취를 통해 연기되고 있다는 제국주의론, 자본주의국가가 안정된 재생산에 필수적인 기능을 자본가를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론, 자본주의국가의 억압과 그로 인해 생겨난 혐위의식 때문이라는 이론 등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6) 패러다임은 쿤(Kuhn 1962)에 의해, 연구 프로그램은 라카토스(Lakatos 1970)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의 연구 프로그램에서 예측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험적 현상들을 여러 개의 보조이론의 벨트(Lakatos 1970)의 수정과 보강을 통해 설명 함으로써, 즉 핵심이론의 반증이 되는 경험적 현상들을 다시금 그 연구 프로그램 내에서 받아들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 연구 프로그램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학이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프로그램에는 두 종류가 있다. 발전적인(progressive)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보조이론들이 그 예외적인 현상들을 큰 이론틀 내에 수용 시킬 뿐 아니라, 검증될 수 있는 새로운 예측력을 가지게 된다. 쇠퇴하는(degenerating)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예외적인 현상들이 임기응변 식으로 설명되며, 그 과정에서 이론이 축소, 사멸되어 새로운 지식이 기대될 수 없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쇠퇴하는 프로그램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둘째, 이론 재구성은 또한 쇠퇴하는 프로그램을 대체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케 한다. 기존의 연구 프로그램내 핵심이론으로는 쌓여 가는 예외적인 현상들과 반증을 도저히 풀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보다 광범위한 이론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론 재구성을 통해 기존 이론과 설명력을 겨눌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 이론들이 경험적 현상 그 자체와 직접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⁷⁾ 그 경험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대적 능력이란 면에서 상대편 이론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경우는 실험을 통해 특정 기제가 특정한 경험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때이나 사회과학

둘 다 핵심이 되는 이론이나 가정, 그리고 개념들을 공유하는 포괄적인 이론체계를 의미한다. 문에게 있어 과학은 그가 문제 풀이(puzzle solving)이라고 명명한 행위, 즉 반증을 패러다임 내의 이론으로 받아들여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진보한다. 만일 풀리지 않는 반증들이 축적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공격에 시달리게 되면 과학자 집단이 이 패러다임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는데, 이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 패러다임이 확립되면 과학혁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상과학이 시작된다. 문보다 조금 더 정교한 과학발전이론을 개발한 라카토스에 따르면 문의 정상과학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연구 프로그램일 뿐인데 과학의 역사상 한 연구 프로그램이 완전한 독점을 차지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문의 이론을 비판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개의 연구 프로그램들이 사실을 설명하는 기제들의 적합성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이론적 다원주의가 지배적 이었다는 것이다.

7) 이론과 경험적 현상이 직접 비교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과학철학의 입장은 고전적인 경험주의의 경 우가 대표적이다.

이 탐구하는 대다수의 경험적 현상은 여러 가지 실질적 혹은 윤리적 이유들로 실험이 불가능하므로 실행되기 어렵다.

2. 연구 사례소개: Joohee Lee, Micro-Corporatist Class Compromise and Democratic Stability: The South Korean Case. Wisconsin-Madison대학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 연구논문 프로젝트의 종류

논문 프로젝트는 그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⁸⁾ 첫째, 이미 잘 확립된 이론이 제공하는 개념과 설명들을 사용해 어떤 경험적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연구는 이론 재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경험적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기제를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행위의 결과는 그러나 항상 적용된 이론의 적합성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데, 만일 이론의 적용과정이 실패로 끝난다면, 다시 말해 그 이론이 경험적 현상을 올바로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그 현상이 지속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로 남는다면 이론의 적용보다는 이론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기준의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험적 현상을 바탕으로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종류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나의 논문은 이 두 번째 종류에 속한다.

8)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연구의 종류 중 대립적인, 상호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이론들이 제공하는 가설들의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논문 프로젝트가 있다. 각 이론의 가설을 소개하고 한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 가설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이런 연구는 주류 사회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론들은 한 현상에 대한 다른 다른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립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떤 현상이 설명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무리한 비교는 자칫 성과 없는 연구가 되기 쉽다. 또한 서로 다른 이론들이 제공하는 원인들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영향받기 쉽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는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2) 논문작성의 실제 I: 주제(topic)에서 질문으로

대부분의 연구논문 프로젝트가 첫 번째 큰 진전을 맞이하는 시기는 연구자가 자기의 관심분야에서 꼭 던져보고 싶은 질문 — 진지한 답(설명)을 요하는 진지한 질문 — 을 생각해 냈을 때이다. 관심분야의 이론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이었을 때에는 주로 그 이론에 비추어 어떤 경험적 현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며, 이런 질문은 궁극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논문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유형의 연구를 하도록 연구자를 이끈다. 두 번째 유형의 논문 프로젝트에서처럼 이론 재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은 관심분야의 이론이 실패했을 때, 즉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이유 — (1) 이론적 탐구대상을 기준 이론이 잘못 파악한 경우; (2) 설명력있는 개념의 부재; (3)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족; (4) 기준 이론의 내용 자체에 대한 반론 —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유로 인해 관심있는 경험적 현상과 관련된 이론이 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할 때 하게 된다. 나의 논문이 시도한 이론 재구성은 주로 (1)과 (4)의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 가능성이란 큰 주제 내에서 박사논문을 쓰기로 결정한 이후 특히 내 관심을 사로잡은 구체적인 주제는 최근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체제의 안정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트 협약과 타협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민주주의 이행/공고화이론들은 민주주의의 안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엘리트간의 협약이나 타협 없이 신생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키고 권위주의 군부의 체제전복 위험성을 급격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6·29 선언을 엘리트 협약의 예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으나,⁹⁾ 그 선언은 단지 대통령 직접선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약속이었을 뿐 정치적 협약¹⁰⁾은 아니었다. 1990년의 3당 합당은 제1야당인 평민당이 빠졌다는 점에서 엘리트간의

9)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저작에는 Im(1989), Ahn(1994) 등이 있다.

10) 페보스키(Przeworski 1991: 90)에 따르면 정치적 협약이란 “정당의 지도자들끼리 (1)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정부요직을 나누어 가지고, (2) 기본적인 정책지향을 결정하고, (3) 외부인을 배제 혹은 억압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타협이 아니었고, 더구나 엘리트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그 합당이후 지배당이 된 민자당은 더 큰 분열과 권력투쟁, 불안정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의 경우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엘리트 중심이론 내에 중요한 예외로 남는다. 그렇다면 엘리트간의 타협이나 협약 없이 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제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는가? 새롭게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에서 민주적 안정성을 이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3) 논문작성의 실제 II: 질문에서 이론 재구성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나의 새 이론틀의 핵심적 주장은 엘리트 타협이 아닌 계급타협이 민주주의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계급타협이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엘리트 타협과 다른 점은 그것이 비록 제한적이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 재분배와 물적 복지의 확충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 새롭게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룩한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타협은 또한 케인즈주의가 타협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발전된 산업국가에서의 타협과도 분명히 구분된다.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와 압축적으로 일어난 산업화과정으로 인해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계급정치의 중요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 단계의 이론 재구성에 착수해야 했다. 첫 번째, 기존의 엘리트 이론틀이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대해 설명되어져야 하는 문제의 핵심을 잘 못 파악했기 때문에 계급중심적 이론으로의 변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계급타협” 개념이 서구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태어난 개념인 만큼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계급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탐구되어오지 않았다. 그것은 계급타협이 개발도상국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¹¹⁾ 흔히 신조합주의적인 타협과 관련되

11)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계급타협의 대표적인 예는 20세기 중반 남미 민중주의정권에서 찾을 수 있다. 1949년의 Prebisch 선언에 따른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한 몇몇 남미 국가들은 조직노동과 중하위소득집단을 포함하는 발전연합을 구성하였는데, 그들은 높은 수준의 국가복지에 대한 대가로 그 발전연합과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한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정치적 지지를 보냈다. 문제는 종속자본주의국가의 불안정한 자본축적과정으로 인해 그런 발전연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

어 발전된 기존의 이론적 틀이 유용한 분석적 도구가 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의 이론 재구성작업에서는 따라서 어떻게 계급타협이 미시적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시적이나마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론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1)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엘리트 중심이론의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은 오도넬과 슈미터(O'Donnell and Schmitter 1986)의 민주주의 이행이론이다. 이 이론틀에서는 민주주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무척 강조되고 있는데, 이행의 과정이 이렇게 불확실한 이유는 언제든지 가능하면 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고 과거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권위주의시대의 구 정치인과 군부의 존재 때문이다. 그들이 제기한 질문은 따라서 다음과 같다: 이행이 이렇게 불확실한 과정이라면 어떻게 신생 민주주의가 반민주주의세력들을 위협하지 않고 제도화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보수적인 정치적 합의¹²⁾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심스러운 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즉 군부와 구 정치세력, 그리고 그 권위주의체제의 지지자였던 브르조아지를 자극하지 않도록 그들의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동운동이나 그 외 민중운동은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여야 하고 그 대신 이행은 구정치권내 온건파와 권위주의 반대세력 중 중도파의 타협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이행이론을 기점으로 수많은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이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하에 엘리트 타협과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논의했던 이론가들(Lipset[1959]1981; Huntington 1968)도 이제는 정치엘리트의 정책과 선택에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이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대안적 제도에 대한 연구조차(Linz 1990) 엘리트 협약과 대규모 정치연합을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도된 것처럼 보인다. 엘리트 중심 이

12) 오도넬과 슈미터가 특별히 보수적인 학자들이어서 이런 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지나친 혼란과 패행으로 점철된 남미 군사정권의 잔인한 무력사용과 경제적 무능력에 거의 자포자기되어 어떤 형태의 제한된 민주주의라도 과거의 독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남미 학자들의 집합적 소망상태를 반영한다.

론으로의 전환을 환영하면서 몇몇 학자들(Higley and Burton 1989)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은 엘리트간의 타협을 통한 엘리트 합의(consensus)의 결과라는 새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들은 엘리트가 타협을 하게되는 기제와 그 타협하는 엘리트가 새 민주주의의 생존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약점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행동자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개개행동자의 정치적 능력과 행위는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에 의해 제약되므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이 불확실성보다는 민주주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조건 그 자체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국가구조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 순간을 정치 엘리트에게 맡기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제외된 민중부문의 억압된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에 억압된 민중부문의 상승된 물질적 기대수준을 수반한다. 엘리트 타협에 의한 민주화는 비록 이행에 성공하더라도 불만족한 민중부문의 반발과 저항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공고화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지배적인 이행이론은 반 권위주의 세력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이행이 중도파 엘리트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급진세력은 자제해야 한다는 이론은 실제로 반 권위주의 세력 내의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 진행되는 역동적인 갈등과 타협, 그리고 급진 노동세력이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추구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략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¹³⁾

나는 논문에서 위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억압된 사회계급과 집단들의 물적 이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군부 경제정책의

13) 이 점은 애들러와 웹스터(Adler and Webster 1995)가 최근 발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분석 — 남아공의 노동총연맹, the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COSATU)가 어떻게 이행과정에서 타협과 투쟁의 유연한 전략변동을 통해 이행과정의 중요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 —에서 유려하게 잘 비판되어 있다.

완전한 실패로 군부가 저절로 붕괴해 버린 남미의 몇몇 국가들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물질적 재분배 과정이 지나치게 진행되어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원만한 운행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 미묘한 균형은 엘리트의 협약과 타협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그 대신 물질적 재분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두 생산자 집단, 즉 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요구하게 된다. 국가가 충분한 자원과 정치적 능력을 갖추고 노동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으면 거시정치적 계급타협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구조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부분적 타협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나 비록 부분적 타협이라도 이 타협에 상당한 파괴적 권력자원을 가지고 가장 큰 재분배에 대한 욕구를 이행기간동안 드러낸 핵심 노동부문이 포함된다면 역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이룩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노동과 민중의 자체를 요구하기보다는 이 부문의 물질적 욕구를 제한적이나마 수용함으로써 계급적 합의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타협은 아무리 범위가 적은 타협이라도 일정한 수준의 자본의 양보와 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안정성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급타협이 민주주의제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이유는 권위주의로의 회귀와 재집권의 기회를 얻기 위해 군부 강경파가 정치간섭을 정당화 할 때 흔히 이유로 드는 사회불안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급타협 이론

미시적 수준의 계급타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급타협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 변수, 노동과 자본의 구조적/조직적 권리자원, 그리고 타협가능한 정치경제적 공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① 노동의 권리자원

기존의 계급타협 이론은 항상 노동의 조직력을 가장 중요한 계급타협의 조건으로 상정해 왔다. 그것은 단지 자본으로 하여금 이윤의 일부를 미래의 임금향상을 위해 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해서 뿐 아니라, 노동 스스로도 내부의 어떤 한 그룹이 다른 대다수의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서로 다

를 여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문간의 이동은 기술적 혹은 다른 비공식적 장벽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전체 노동의 조직력이 약하다고 해도 어떤 부문의 노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위치함으로서 그 수적 조직력 이상의 구조적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부문내의 노동이 거의 다 조직되어 있다면 부문내의 부분적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문적 타협은 국가의 개입으로 특정부문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자본의 권력자원

계급타협은, 비록 그것이 정치적으로 강한 노동운동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해도 강한노동/약한자본의 이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신조합주의적 타협의 대부분이 중앙수준의 조직력을 가진 자본을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임금구조를 단일화하는 동시에 산업평화도 얻고 싶어했던 자본가 조직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강한 자본이 타협을 원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하에서는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통제가 일방적, 강압적 통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그 동의제조에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는 헤게모니적 통제의 효율성에 달려있다. 그람시가 잘 설명했듯이 헤게모니적 통치는 반대세력의 투쟁을 비현실적이고 대가없는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 세력의 물질적 이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두 과정이 합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통치체제에 대한 동의는 그 체제에 대한 단순한 복종과는 구분되는데, 그것은 동의하는 노동자들이 인지구조상 자본주의적 이윤의 추구에 협조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4) 조직노동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이 밑에 깔린 논리이다. Olson(1982)이 특히 이 논리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사회성원을 포함하는 이익집단과 아주 소수의 사회성원만 포함하는 이익집단은 다르게 동기 지워진다. 만일 한 집단의 성원이 사회의 1퍼센트만을 조직하고 있다면 그 집단은 공공재를 생산해 내기 위한 비용을 그들이 다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재의 단 1퍼센트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집단이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한다면 단 1퍼센트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회로부터 100퍼센트의 재분배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논리가 사회성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집단에 적용된다. 이 집단은 이기적으로 재분배적 이득만을 추구할 수 없다. 그 대신 이 집단은 사회전체에 대해 이득이 될 만한 기여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③ 타협의 정치경제적 공간

계급타협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의 변수는 타협의 조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정치경제적 공간이다. 전후 발전된 산업국가에서의 타협은 대부분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규격화된 상품을 적은 생산비용으로 대량생산해 내는 체제는 대중의 안정적인 구매력을 필요로 했고, 따라서 국가와 자본은 노동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로 했던 노조의 활동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었다. 이 안정된 타협의 기초는 1970년대를 고비로 서서히 붕괴되었는데, 그 쇠퇴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점증하는 국가간 경제통합, 즉 세계화의 현상이었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의 치열함과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량생산방식은 생산품이 기계설비 투자분을 회복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과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짧은 생산단위를 가져 수요변화에 민감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 점차 그 입지를 넓혀가게 된 것이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생산 조직의 변화는 노사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처럼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노동의 국가수준에서의 교섭력과 조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점점 격화되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자본은 국가가 관장하는 완전고용, 수입재분배 정책의 완화 및 제거를 원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으로의 회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연생산방식에서처럼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의 참여와 협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의 기업단위 교섭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화되지 않는다. 유연생산방식은 디자인 엔지니어링과 생산 엔지니어링 사이의 구분을 점차 없애고 각각의 생산단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본은 점점 더 노동이 단지 계약상의 의무를 넘어서 더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이윤의 증가를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전환은 신조합주의적 타협의 기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몇몇 경제부문에서는 기업수준에서의 협조에 바탕한 미시조합주의로 그것을 대체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을 등장시킬 수 있다.

미시조합주의는 노동과 자본이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라는 점에 선 신조합주의와 같지만, 그 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고, 따라서 이 두 집단이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도 이들의 교섭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정,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미시조합주의는 노동자

의 개별기업에 대한 생산주의적 이해관계가 그 이해관계에 기초한 노동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내 생산성과 이윤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본가의 합리적 선택과 일치할 때 성립된다. 그 때문에 미시조합주의는 신조합주의처럼 두 생산자 집단의 중앙 수준의 조직력이나 개별국가의 자율적 정책결정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생산현장에서의 협력을 유도, 조정해 줄 수 있는 노사협의회나 협조주의적 기업별 노조의 존재, 그리고 고기술 노동력의 공급이나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의 미시적 정책수립능력이 미시조합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신조합주의적인 이익정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작업장에서도 이러한 협력의 기제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미시조합주의에 기초한 부분적 생산현장내 계급타협에 대한 개념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기업내의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기업의 사적 복지제공은 몇몇의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국가수준에서의 교섭은 종종 기업수준에서의 노동협의회나 노조지부의 활동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의가 생산의 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강한 복지국가의 발달을 가져온 거시정치적 타협의 결과 자본가의 힘이 노동시장에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즉 미시조합주의가 타협의 주된 기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미시조합주의에 기초한 타협은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치타협이 부재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동의가 노동과 자본의 타협과 협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별 기업의 노동과 자본이 계급타협의 단위를 형성하므로 이 경우 타협하는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배분 받기 위해 전 계급적 연대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시조합주의적 계급타협의 혜택은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가장 구조적, 조직적 권력자원의 양이 많은 노동의 한 부문에 집중되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시조합주의에 기초한 타협이 덜 안정적이진 않다. 어떤 형태의 타협이라도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계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협의 조건을 이행토록 강제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수준의 조직력은 필요하게 된다. 미시조합주의적 타협은 그래서 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이 더 큰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타협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그 타협의 안정성을 위협할 만한 구조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 Adler, Glenn and Eddie Webste(1995), "Challenging Transition Theory: The Labor Movement, Radical Reform, and Transition to Democracy in South Africa," *Politics and Society* 23: 1.
- Ahn, Chung Si(1994),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Reform in Korea: Development, Culture, Leadership and Institutional Change," in Doh Chull Shin et al. eds., *Korea in the Global Wave of Democratiz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Bhaskar, Roy(197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Sussex: Harvester Press.
- Braverman, Harry(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 Burawoy, Michael(1979), *Manufacturing Cons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London: Verso.
- Higley, John and Michael G. Burton(1989), "The Elite Variable in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Huntington, Samuel P.(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Im, Hyug Baeg(1989), "Politics of Transition: Democratic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Keat, Russell and John Urry(1975), *Social Theory as Sci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 Kuhn, Thomas S.(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atos, I. and A. Musgrave(eds)(1970),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1990),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 1.
- Lipset, Seymour Martin([1959]198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lson, Mancur(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Orloff, Ann and Theda Skocpol(1984), "Why Not Equal Protection: Explaining the Politics of Public Social Spending in Britain, 1990-1911, and the United States, 1880s-192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6.
- Poulantzas, Nicos(1975),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New Left Books.
- Przeworski, Adam(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Democracy and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Erik Olin(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New Left Books.
- _____ (1985), *Classes*. London: Verso.
- Wright, Erik Olin, Andrew Levine and Elliot Sober(1992), *Reconstructing Marxism*. London: Verso.

abstract

Theory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A Case Study of Dissertation, ‘Micro-corporatist Class Compromise and
Democratic Stability’

Joohee Lee*

The process of theory formation can be viewed as the process by which concepts are produced and linked together with proper causation. When a set of established theoretical formulations seems unsuited to the explanatory tasks, it suggests the need for reconstruction of the theory itself. There are four common reasons that motivate such a reconstruction: dissatisfaction with the characterization of what needs explaining; dissatisfaction with the explanatory concepts available for understanding the object of investigation; dissatisfaction with the methodological options available for linking concepts within explanations; dissatisfaction with the general substantive theoretical claims. This paper reviews the logic and practice of theory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based on a case study of dissertation. This dissertation project points to an empirical observation which is problematic/puzzling within existing theoretical frameworks. Such explanatory failure from existing frameworks then leads to theory reconstruction or paradigm shift based on empirically-grounded study of the identified anomaly.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Research Area: Economic/Industrial Sociology, Industrial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Major Publication: “Income Assistance and Employment Creation through Public Works in Korea”(2000), “Micro-Corporatism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Enterprise-level Industrial Relations”(1998), “Class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 in South Korea”(1997). E-mail: jlee@kli.re.kr.